

문화

야밤에 대인시장서 재밌게 놀기

대인예술 <7~9일> 야시장

이번 주말 밤에는 대인시장에 가보자. 오후 7시가 넘으면 불이 하나둘 꺼지며 적막이 감도는 공간이지만, 이번주 금~일요일까지는 밤 12시가 넘도록 그곳은 불야성을 이룬다.

700여개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진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집에서 가지고 나온 책이나 CD 등을 판매할 수도 있고, 배가 출출해 먹을거리가 생각되면 골목 구석 구석에 비치된 마차에서 순대며 튀김, 국수 등 맛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막걸리 한잔에 취해도 좋다.

가을밤 대인시장에서 흥겨운 난장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과 대인예술시장 너티나 무숨은 오는 7일부터 9일(오후 7시30분~밤12시)까지 3일간 대인시장 일대에서 '대인예술 야시장'을 연다.

대인시장에 살고 있는 예술가, 상인,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대인 예술야시장은 수 백 개의 등과 마차들로 시장을 활기차게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등불 프로젝트'는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아 어둠이 내린 거리에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이벤트다. 주최측은 최근 대인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 페트병, 한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등불 700여개를 제작,

어둠 내리면 '등불 프로젝트'

없는 게 없다 '만물마차'

다양한 장르 '게릴라 공연'

구석구석 꾸민 '골목예술제'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곳곳에 내건다.

'만물마차'는 제목처럼 '모든 게' 다 있는 간이 판매대로 야시장 거리에는 이기성·윤남웅·신양호·조승기씨 등 대인시장에 등지를 틀고 있는 작가들이 만든 50여 개의 마차가 배치된다. 막걸리 마차에서는 주류, 음료, 안주, 식사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며 예술마차에서는 수공예세서리 등 다양한 예술품을 판매한다.

또 체험마차에는 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지는 '게릴라 공연'도 눈여겨볼만하다. 대인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예술단 3팀(노래교실, 기타교실, 대인배)의 합창과 기타합주, 마당극 공연이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대인시장에서 진행한 바다프로젝트의 거리악사 공연, 놀이패 신명의 길놀이, 밴드 'MUZZI'의 퍼포먼스 등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밖에 '골목예술제'는 대인시장 상주 작가들의 설치작품, 그림, 벽화 등으로 골목 구석구석을 꾸미는 프로젝트다.

한편 8일에는 제1회 대인시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열린다. '시장이 반짝, 무엇이든 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그림대회는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인예술시장 문화관 및 상상의 공간(대인시장 주차장 후문 주변 약제거리)에서 진행된다.

기존에 물감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형식을 버리고 나무, 각종 폐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재료와 물건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며 오후에는 '반나절 미술학교'가 진행된다. 문의 062-233-1420.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올해는 받을까

내일 발표... 아도니스·하루키·이창래·황석영 주목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일이 6일로 확정되면서 과연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해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고은(78·시인) 시인의 수상 여부도 관심사다.

2006년 파무크의 수상을 맞췄던 영국의 온라인 베팅사이트 레드브룩스는 특히 올해 유력 후보로 아도니스를 꼽았다. 비유림권인내다 시인이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레드브룩스는 4일 현재 아도니스의 수상 배당률을 4대1로 매겼다.

가능성 6대 1인 스웨덴 시인 토머스 트란스트로메르(80), 8대 1의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62)가 뒤를 따르고 있다.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났으나 노벨문학상 단골후보인 시인 고은(80)도 가능성 14대 1(6위) 여전히 기대 대상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다 '만인보' 등 고은의 시가 세계 각국에 번역돼 이름을 알렸고, 한동안 수상자가 없었던 시인이라는 점에서 수상도 노려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수상자 요사도 레드브룩스의 배당률이 40대1로 낮았지만 전문가의 예상을 뒤집고 수상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베팅사이트인 나이서오즈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함박자'(The Surrendered)를 쓴 재미교포 소설가 이창래(46)를 수상 후보 3위(8대1)에 올려놓아 눈길을 끈다.



이 사이트에는 인도의 작가 비야단 데타를 가장 유력한 후보(배당률 7.5대 1)로 꼽았고, 아도니스(8대 1)가 그 뒤를 이었으며 고은 시인도 후보(15대 1, 11위)에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레드브룩스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설가 황석영(68)씨의 깜짝 수상도 점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태일 시인 문학정신을 기린다

8일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서 12번째 추모행사

1970~80년대 힘찬 언어로 폭압적 현실에 저항했던 죽형(竹亨) 조태일(시인)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추모문학기행행사가 8일 곡성 태안사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고인이 재직했던 광주대 문창과 학생과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추모행사를 가져왔는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행에는 조 시인의 제자

는 물론 화순지역 고등학교생 등 12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한다. 참가자들은 곡성 태안사와 생가 터 등을 답사하고, 시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을 둘러본다.

조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되짚어 보는 백일장과 강연회도 준비됐다.

ROTC시절부터 친구로 인연을 맺었던 고현석 전 곡성군수가 '친구 조태일, 인간 조태일'을 주제로 한 강연하며 또 조



태일 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조태일 전집'(전 4권·참비 펴냄)을 엮은 이동순 전남대 연구원이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조 시인은 곡성 태안사 대처승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동리산 자락에서 자랐으며, 곡성 동계초와 광주 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1989년 광주대 교수로 임용, 후학들을 길러냈으며 1999년 간암으로 작고했다. 만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문의 010-3618-559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이남, 움직이는 명화 연작 11월 4일까지 서울 '아트센터 나비'

디지털 기술로 움직이는 명화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5일~11월 4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아트센터 나비'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명화가 살아 있다'를 주제로 김홍도, 김충희의 동양화와 모네, 고희의 서양화 원작을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명작 속의 풀잎을 벌레가 갉아 먹는 등 새로운 스토리를 곁들였고, 남은 나뭇잎의 생채기가 고희의 자화상으로 변하는 등 색다른 발상법을 보여준다. 또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월드 트레이드센터의 폭염은 동양화의 아름다운 산수로 변하는 등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유클 2008' 한국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3회 대한민국의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문의 02-2121-10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목죽도'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선택이 즐거운 영화상차

상무점

1관 최종병기 활 (15세)

2관 도가니 (18세)

3관 도가니 (18세)

4관 도가니 (18세)

5관 컨테이션 / 킬러엘리트 (18세)

6관 카운트다운 (18세)

7관 의뢰인 (15세)

8관 의뢰인 (15세)

9관 챔프 (12세) / 파퍼씨네 뽀글들

10관 어브릭션 (15세)

리뉴얼 오픈기념 BIG EVENT 5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 달라진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행복한 경품이 awaits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상무점) 리뉴얼 오픈기념! 매일매일 팝콘이 공짜! 당일 티켓을 매점으로 가져가시면 이벤트 팝콘증정해 드립니다.

클롬버스시네마

1관 의뢰인 (15세)

2관 도가니 (18세)

3관 도가니 (18세)

4관 카운트다운 (18세)

5관 카운트다운 (18세)

6관 코쿠리코 언덕에서 (12세)

7관 킬러엘리트 (18세)

8관 최종병기 활 (15세)

9관 어브릭션 (15세)

10관 의뢰인 (15세)

하남점

1관 의뢰인 (15세)

2관 도가니 (18세)

3관 도가니 (18세)

4관 카운트다운 (18세)

5관 카운트다운 (18세)

6관 코쿠리코 언덕에서 (12세)

7관 킬러엘리트 (18세)

8관 최종병기 활 (15세)

9관 어브릭션 (15세)

10관 의뢰인 (15세)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0600

MEGABOX

M관 도가니 (18세) 최고급관

2관 의뢰인 (15세)

3관 코쿠리코 언덕에서 (12세)

4관 어브릭션 (15세) / 도가니 (18세)

5관 언피니시드 (15세)

6관 의뢰인 (15세)

7관 스톤 (18세) / 투혼 (현재)

8관 최종병기 활 (15세)

9관 카운트다운 (18세)

10관 도가니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대형, 황금주최대형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ARS 전화예매문의 ☎ 1588-7941

롯데시네마

1관 카운트다운 (18세)

2관 최종병기 활 (15세) / 동중 (15세)

3관 컨테이션 (12세)

4관 도가니 (18세)

5관 의뢰인 (15세) / 가문의 영광4 (15세)

6관 코쿠리코 언덕에서 / 컨테이션

7관 도가니 / 킬러엘리트 / 파퍼씨네 뽀글들

8관 어브릭션 (15세)

9관 도가니 (18세) / 흑성탈출 (12세)

10관 의뢰인 (15세)

상무점 GRAND OPEN! 매일 심야 상영중! www.lottecinema.co.kr